

中央藥大 同門會報

여름

2005년 제18호

삼지구엽초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여름
2005년 제18호

CONTENTS



표지사진 : 박장규(9회) 동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중앙약국)

- 3. 인사말
미래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 4. 시 론
당당한 중앙인이 되자
- 6. 동문회소식
새 회장에 권혁구 동문(9회) 추대
수상을 축하합니다
회장단회의 /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운영위원회
여동문회 / 고문단회의 / 최종이사회 / 감사수감
기금운영관리위원회 / 학장 및 총장 면담
사무총장단회의 / 첫발을 내딛는 의혈인
- 14. 여동문회소식
새롭게 시작하며
- 15. 특별기고
바톤을 받아들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18. 동기별소식
21회/세월이 워낙 '빨라' 돌이켜 볼 시간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
- 20. 별난동문이야기
피부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의 길
- 22. 약국도움이야기
소화불량
- 24. 특별기고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 25. 만평
보물찾기
- 26. 회원동정
- 29. 모교소식
구조개편 겸임·객원 교수 위촉
- 30. 부속병원소식
중앙대학교병원 개원
- 32.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내역(기슈별)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 36. 편집후기



권혁구
(9회, 제15대 동문회장)

친애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질푸른 녹음과 강렬한 태양의 계절에 6천여 동문들께서 날로 건승하신지 먼저 문후 인사드립니다.

우리 동문회의 연륜도 어언 50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회장단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동문회가 학교와 동문들의 사이를 잇는 교량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동문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를 빛내 주신 기라성 같은 선배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지난 5월 21일 제15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후배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보다 모범적이고 활발한 동문회로 가꾸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동문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생각컨대 우리 동문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단결과 화합,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동문 상호간의 인화단결과 친목강화 일 것입니다.

그간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동문회는 동문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전통을 잇는다는데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전임 회장님들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동문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기별동기회와 지부동문회를 통한 동문 답합 행사를 활성화하여 6천여 동문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조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 동문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우리 동문들 개개인의 성장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 동문회의 발전이 전적으로 동문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협력에 달려있음을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동문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이 모교 후배들에게는 미래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날, 새 출발은 언제나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영광스런 역사가 더욱 빛나도록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문회의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한 중앙인이 되자



안 병 식
(13회, 부회장)

- 이봐! 술 깨는 약 있냐?(딸꾹)
- 예, 손님! 어서 오십시오. 술 깨는 약 찾습니까?
- 그래! 술 확 깨는 것 있어?(딸꾹)
- 예, 이것 잡수시면 됩니다.
- 야! 이거 먹으면 확실하게 깨냐?
-
- 야! 이거 말고 더 좋은 약 있냐?
- 한방에 확 깨는 것 있어?(딸꾹)
- 그러면 이걸 잡서 보시죠.
- (꿀떡꿀떡) 개욱! 카~ (딸꾹) 얼마나?
- 예~ 십 만원입니다.
- 어억!(눈이 동그래지며)
- 아니 약 한 봉지와 드링크 한 병에 십 만원이야? 엉?
- 그래! 이 X강아지야! 술이 좀 깨냐?
- 화끈하게 술 깨는 약 달라고 했지?
- 술을 입으로 안 먹고 X구멍으로 처먹었냐?

30여 년 전 혈기 왕성했을 때의 어느 날 우리 약국의 풍경이다.

휴일도 없이 새벽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설새 없이 일 해오면서 손님들에게 짜증도 내고, 이 지겨운 약국 얼른 돈 벌어서 그만

뒤야지 하고, 푸념했던 때가 30년 전이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가용도 샀다. 집안에는 에어컨, 냉장고, DVD 없는게 없다. 지역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모임에 그럴듯한 명함도 가지게 되었다. 연산군, 광해군의 수라상에도 100가지 음식이 오르지는 않았겠지만, 이름도 모를 요리음식이 나오는 뷔페음식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은 풍요로운 감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어느 날 약국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약 술갈이 절반이상 닳아, 칼날 같이 된 것을 보고, 스스로 성실성에 감탄하고 버리기가 아까워, 집에다 두었던건만, 너무 깊어 두어서인지, 버린 사람은 없는데 찾지를 못해서, 어느 일요일 한나절 동안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왜 닳아빠진 약 술갈에 집착하는가? 약 술갈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약국을 하는가? 나에게 약국은 무슨 의미가 있나?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가용도 샀건만 지금 만족한가? 행복한가? 많은 의문을 갖게 하던 차에 로타리 클럽에서 충북 음성의 꽃동네를 봉사차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꽃동네 입구에 남루하게 차려 입은 거지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의아해 하며 꽃동네 여기저기 살펴보고, 일정 금액의 로타리 클럽에서 봉사기금을 전달하고, 수녀님으로부터 꽃동네의 내력을 들었다.

최귀동이라는 할아버지가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 불편한 다리를 절룩이면서 상당량의 밥을 구걸하여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신부가, 궁금하여 그의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다리 밑에 판자 집을 지어놓고,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20여명이나 모아놓고, 구걸을 해다가 먹이고 있는 것을 보고 “언어 먹을 힘만 가진 것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꽃동네를 지어 봉사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 수녀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거지가 무엇인지 아십니

까? 하고 물었다. 이런 저런 대답들이 나왔으나, 수녀님은 “다 틀렸습니다. 거지란, 달걀 줄만 알고 줄지 모르는 사람” 이 거지입니다.

이곳은 부랑인들을 모아놓은 곳이나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청소와 목욕을 시켜주며 봉사하고, 누군가의 물리적 도움이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죽어서 장기와 육신을 기증한다는 유언을 모두 남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 수녀님은 “이들이 거지입니까? 바깥 세상에는 육신이 멀쩡한 거지가 많습니다.” 하였다. 우리들은 꽃동네를 나오면서, 꽃동네 입구에 서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동상이, 거지가 아닌 천사의 동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내가 그 동안 살면서 남에게 달라고만 했지 베풀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졌다. 남의 건강을 지켜주며 생활해야 할 약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가족의 생계수단과 치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를 앓고 죽을 때 많은 업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거지가 와서 동전 한 푼을 구걸하거든, 네가 나의 업을 떼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고맙다. 하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법정스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약사라는 직업에 감사해야 한다.

매일 같이 내 업을 떼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벌써 나이 60이 되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 보니 삼성, 현대, 두산, 한전... 내나라 하는 회상의 추억이었던 친구들, 변쩍 변쩍 군인 모자에 별을 달고 다니던 친구들,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여 선생님이 되었던 친구들 등등... 거의 퇴직하여 또 다른 직업을 잡았거나 화백(화려한 백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나는 흰머리 가락에 흰 가운을 입고 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중앙대학 약학대학을 나와 정년이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모교의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 하는 것도 생활의 한 보람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훌륭한 선배를 두고 든든한 후배를 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을 건전하게 갖는 것도 중앙인의 자세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를 앓고 죽을 때 많은 업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거지가 와서 동전 한 푼을 구걸하거든, 네가 나의 업을 떼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고맙다. 하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법정스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약사라는 직업에 감사해야 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하기를 “탐욕은 분수박의 욕심이요, 죄악중의 제일 큰 죄악이고, 인간이 만족을 모르는 것은 재앙 중 제일 큰 재앙이요, 욕망을 다 채우려하는 것은 허물 중에 가장 큰 허물이다.” 하였다. 우리들의 욕심을 모두 채우고 언제 중앙인답게 살겠는가? 의에 죽고 참에 사는 모교의 정신에 따라 봉사하는 약사로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보살피며 사랑하는 중앙인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당당한 중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본다.

새 회장에 권혁구 동문(9회) 추대

제15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 탄생



▲ 퇴임 인사를 하는
임상목 전회장



▲ 취임 인사말을 하는
권혁구 신임회장

본회(회장 임상목)는 지난 5월 21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앞 프라자호텔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권혁구(9회)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임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모교와 동문회가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출될 동문회장이 젊은층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원 학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모교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회에 감사한다”며 “올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약학대학 평가에서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선출순서에서 만장일치로 권혁구(9회) 동문이 선출됐다. 권혁구 신임회장은 “동문회를 새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문회 발전을 저해하는 동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등의 결의를 거쳐 제명 등의 강한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니 동문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성대석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이민원 학장의 모교 명예교수 및 재임교수, 서울시 약사회 권태정 회장, 조덕원 부회장, 한국여약사회 고미지 회장, 정춘희 총무, 여약사 신문 김용발 부사장을 비롯 타 약대 동문회 임원(서울대, 이대, 숙대, 덕성, 동



“동문회를 새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조직을 재구성하고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문회 발전을 저해하는 동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등의 강한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니 동문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덕, 조선대), 제약사 관련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또 올해 졸업생인 49회 신입동문들도 참석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권혁구 회장은 당선직후 모교약대발전기금과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각각 천만원씩 기부했다.

감사에는 김영일(7회), 윤주섭(8회) 감사가 유임되고, 권태섭(9회) 동문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날 여동문회는 박찬희(11회) 회장 후임으로 이경옥(19회) 동문을 만장일치로 여동문회 회장에 선출했다.



▶ 축하를하는 이만원 회장



▲ 신입여동문회 이경옥 회장, 신임 권혁구 회장, 전임여동문회 박찬희 회장, 전임 임상목 회장



▲ 권혁구 회장의 기금 전달

교 약학대학 동문회
도 정기총회
21(토) 장소: 서울프라자호텔



▲ 새내기 49회 신입동문들



수상을 축하합니다



- ▶ **총장공로패** - 박명자(5회), 금광약국 - 유영후(7회)
- ▶ **총동창회장 공로패** - 윤대봉(14회), 소화약국 - 조중형(18회), 백화점약국
- ▶ **학장 공로패** - 정찬현(20회), 그린프라자약국 - 안희규(28회), 두하요꼬모리(주)
- ▶ **동문회장 공로패**
 - 원정팔(12회) 도봉·강북지부 - 이영운(15회) 구로·금천지부 - 전춘이(18회) 강남지부
 - 임재영(22회) 동대문지부 - 김덕진(27회) 안산지부 - 유재수(27회) 인천지부
 - 김광식(30회) 용인지부 - 조양연(32회) 시흥지부
- ▶ **재직 기념패** - 유영후(7회) - 강옥희(12회)



▲ 박명자(5회) 동문



▲ 유영후(7회) 동문



▲ 조중형(18회) 동문



▲ 정찬현(20회) 동문



▲ 안희규(28회) 동문



▲ 전춘이(18회) 동문



▲ 임재영(22회) 동문



▲ 김덕진(27회) 동문



▲ 김광식(30회) 동문



▲ 조양연(32회) 동문



▲ 유영후(7회) 제13대 동문회장



▲ 강옥희(12회) 제7대 여동문회장



회장단회의

△일시 : 2월 21일 오후 6시

- △안건 : 1. 경과보고
 2. 회장단회비의 건
 3. 최종이사회 준비의 건
 4. 기타토의 사항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운영위원회

△일 시 : 4월 11일 오후 7시

△참석자 : 임상목, 이민원, 유영후, 최영욱, 박찬희

- △안 건
 1. 약학대학 발전기금 결산 보고
 2. 약학대학 발전기금 결산후 조성현황 보고
 3.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 활성화 방안



여동문회의

△일 시 : 4월 13일 오전 12시

△참석자 : 박찬희, 박명자, 김연희, 강옥희,
김미담, 이경옥, 양덕숙, 전금용

- △안 건 : 1. 경과보고
 2. 차기회장논의 건
 3. 기타토의사항



교문단 회의

△일 시 : 4월 19일 오후 6시

△참석자 : 임상목, 김기홍, 오세형, 최종목,
김채윤, 임완호, 유영후, 권혁구

- △안 건 : 1. 동문회, 모교발전에 힘쓰자.
 2. 동문회장의 약사회 임원 겸직 문제논의
 3. 차기회장논의
 4. 중앙대학교 병원약국장을 모교출신으로



최종이사회

△일 시 : 4월 21일 오후 7시

- △안 건 :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심의건
 2. 2005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3.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건
 4. 총회일자 결정의 건
 총회 상정의안 결정의 건



감사 수감

△일 시 : 5월 9일 동문회관
 △참석자 : 임상목 회장, 김영일, 윤주섭 감사, 김경오 사무총장
 △안 건 : 2004년도 회무 및 회계보고 감사



기금운영관리위원회

△일 시 : 5월 12일 동문회관
 △참석자 : 임상목 회장, 이민원 학장, 오세형, 최종목, 김채윤, 유영후, 이기안, 박찬희, 김경오 사무총장



학장 및 총장 면담

△일 시 : 5월 30일 학장실 및 총장실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건의사항 :

1. 약대발전기금이 현재 약 22억에 이르렀으므로 약학관 신축을 2007년도 상반기에는 착공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 올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약학대학 평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민원 학장은 "최우수 약학대학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들의 연구노력과 단합을 당부했다.



사무총장단 회의

△일시 : 6월 1일 오후5시 동문회관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안 건 : 회관수리의 건, 집행부 구성의 건, 지부동문회 활성의 건, 제약 회사 협조의 건, 기타토의 사항

경 2004학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일시 : 2005. 2. 17 (목) 11:00 장소 : 대학원 회의실

희망의 첫발 내딛는 의혈인



▲ 임상목 동문회장 인사말

2004학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2월 17일 오전 11시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약학전공 56명, 제약학전공 5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임상목 동문회장, 이민원 학장을 비롯 명예교수, 재임교수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임상목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입동문이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 중앙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발한발 나아가라” 격려했다.

한편 이민원 학장이 학위증을 졸업생에게 주고 악수하며 축하했고 재임교수들도 악수하며 졸업의 아쉬움과 기쁨을 나누었다.

올해 약대 수석은 이주연(약학전공), 전공수석은 한지은(약학전공), 추미연(제약학전공) 졸업생이 차지했고 우수상을 비롯 공로상, 본동문회, 여동문회, 부산동문회, 안산동문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제약회사 등에서 졸업생을 축하해주는 한편 표창장과 부상도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교가를 제창할 때는 어느때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한마음이 되어 불렀다.

내부상수상자

〈학술상〉

- 대학수석 : 이주연
- 전공수석 : 한지은, 추미연
- 우수상 : 이지은, 김미승

〈공로상〉

- 남우현, 박진석, 오윤선, 김성근, 강명주

외부상수상자

- 대한약사회 : 이주연
- 서울시약사회 : 김주영
- 동작구약사회 : 고경희
- 본동문회 : 김성건
- 여자동문회 : 이재경
- 부산동문회 : 이은지
- 안산시동문회 : 노주현
- 하나제약(주) : 최지예
- 일동제약(주) : 정성희
- 삼진제약(주) : 조정임
- 한미약품(주) : 김원호
- (주)온누리약국체인 : 송명우



▲ 학장님께서 학위증 수여장면



▲ 전체수석자에게 표창패와 부상 수여(약학전공 이주연)



▲ 전공수석자(약학전공 한지은, 제약학전공 추미연)



▲ 대한약사회에서 성적우수학생에게 표창패와 부상을 한덕용 명예교수님께서 대신 수여(약학전공 이주연)



▲ 서울시 약사회장상을 김종갑 명예교수님께서 수여 (제약학전공 김주영)



▲ 동작구 약사회에서 박찬두 회장께서 수여(제약학공 고경희)



▲ 안산동문회장을 대신 김경오 사무총장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약학전공 노주현)



▲ 하나제약(주) 대신 허인회 명예교수님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제약학전공 최지혜)



▲ 일동제약(주) 김종호 이사께서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제약학전공 정성희)



》》》 제49회 졸업생 명단 《《《《

〈약학전공 : 56명〉

강병균, 강승진, 김경희, 김명희, 김민경, 김성근, 김성호, 김소영, 김원호, 김윤상, 김윤진, 김정민, 김진희, 김태훈, 김혜영, 남우현, 남정아, 노주현, 류해숙, 박동영, 박수경, 박아연, 박은정, 박일상, 박지현, 박진석, 박혜미, 배수진, 배종구, 손미영, 송명우, 심인숙, 엄영주, 오화정, 유고운, 이상주, 이선혜, 이소령, 이용래, 이은지, 이주연, 이지은, 이진석, 이태현, 이호진, 임창섭, 정묘광, 정수진, 정통한, 조정임, 채혜원, 최영미, 최용석, 태설영, 한지은, 황은경

〈제약학전공 : 59명〉

강경훈, 강령아, 강명주, 고경희, 고기현, 공소연, 곽은영, 구은정, 기영은, 김도영, 김미승, 김민정, 김민혜, 김보형, 김선영, 김성건, 김성희, 김시진, 김인환, 김조은, 김주영, 김현지, 박재혁, 박진표, 배찬형, 백진이, 서효진, 신휘정, 안은진, 오윤선, 오정민, 육성엽, 이금영, 이신우, 이은혜, 이재경, 이준우, 임경숙, 임해진, 전오경, 정민정, 정성희, 정우혁, 정주호, 정형조, 조길환, 조병곤, 조우리, 진주예, 채규정, 채희찬, 최도선, 최민정, 최윤주, 최지예, 추미연, 하경욱, 한병훈, 허진서



연공차석재(약학전공 이지은, 제약학전공 김미승)



▲ 재학중 학생회장 및 간부 공로상 수여(약학전공 남우현, 약학전공 박진석, 제약학전공 오윤선)



▲ 전공대표자 공로상수상(약학전공 김성근, 제약학전공 강명주)



프롬문화 임상목 회장께서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제약학전공 김성건)



▲ 여자동문회 김미담 총무께서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제약학전공 이재경)



▲ 부산동문회 남기탁 회장께서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약학전공 이은지)



남진제약(주) 천경호 상무이사께서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약학전공 조정임)



▲ 한미약품(주) 이정백 홍보이사께서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약학전공 김원호)



▲ (주)은누리약국체인 박종화 사장께서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약학전공 송명우)



이 경 옥
(19회, 제9대 여동문회장)

새롭게 시작하며

어느 약학대학 보다고 결코 작지도
뒤지지도 않기에 우리의 기량을
맘껏 펼쳐 보여줍시다.
여동문회 활성화에 우리 한번
뭉쳐야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며 제 9 대 여동문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속에 여동문회를 맡게된 19회 이경옥입니다.

저는 현재 구로·금천지부에서 부회장과 여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의약분업 정책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갈수록 어려운 시기에 여동문회를 맡으면서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동문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통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문회의 역사를 말해주듯 올해 49회 졸업생이 신입동문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동문간의 가교 즉 징검다리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선배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룩해 놓으신 장학기금, 모교발전, 학술강좌 등을 바탕으로 신입동문환영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 친선도모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여동문 여러분을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동문 여러분!! 여러 가지 강좌(한방강좌, 기능성화장품, 약국활성화강좌 등)를 개최하여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고, 여동문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을 잇는 모교 장학금 전달, 신입동문 환영회, 체육대회 등에도 적극 협조와 참여로 여동문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동문회가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여동문이 많이 참여하여야 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 여러분!! 어느 약학대학 보다고 결코 작지도 뒤지지도 않기에 우리의 기량을 맘껏 펼쳐보여줍시다. 여동문회 활성화에 우리한번 뭉쳐야겠습니다.

여동문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여동문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민 원
(25회, 약대학장)

바톤을 받아들고

뜨거운 호흡이 느껴지는 바톤을 받아 쥐고 새로 세워져야 할 약학과와 약대 6년제를 바라보며 현재의 지점을 열심히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임무를 다하고 그때 나는 꼭 필요한 돌 하나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의 가문이 있다면 우리 중앙대 약대는 그러한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학장으로서 동문들 앞에 서기에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어느덧 내가 뛸 차례를 만나 바톤을 받아든 심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경기인줄 알았는데 가득 찬 경기장의 관중 앞에서 갖게 되는 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잔잔히 들려오는 응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켜보는 눈, 격려의 음성,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정을 이룬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족이 나를 선택하여 살게 하고 있듯이 내가 선택한 중앙대 약대가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동문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동문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동문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동문만이 학교의 발전을 자신의 보람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지어진 중앙대 병원을 둘러보면서 집 없는 사람이 새로 지은 아파트를 보면서 갖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간혹 동문선배들이 학교를 방문하셔서 내부를 둘러보며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간 구조변경, 새로운 기자재 도입, 늘

어난 교수실과 연구실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앙대 약대는 새로운 약학과 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는 정말 좋은 것이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간직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다 타버린 연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너는 그 연탄처럼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묻는 시가 생각납니다. 열정과 열심은 참 쉽게 자취를 감추는 것을 봅니다. 조교 시절 은사이신 교수님이 온 실험실에 빼곡히 채워 놓으신 진행 중인 일들을 보며 한편은 놀라고 정리하기 쉽지 않은 비이커들을 치우면서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무는 왜 그리 잎이 많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지는 모든 방향으로 팔을 벌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뜨거운 호흡이 느껴지는 바톤을 받아 쥐고 새로 세워져야 할 약학과와 약대 6년제를 바라보며 현재의 지점을 열심히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임무를 다하고 그때 나는 꼭 필요한 돌 하나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도 합니다.



최영욱
(24회, 전 약대학장)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다소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의 내음을 맡으면서 새로이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을 하나 둘씩 잘 풀어가고 계시길 줄로 믿으며, 그간 닥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 먼저 안부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2월 3일자로 학장 보직을 마치고 이제 교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교육과 연구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기 2년에 1년을 더 연장하여 총 3년간의 재임기간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기에 훌가분하게 중책을 벗으며, 그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길이 없어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같아선 일일이 찾아뵙고 싶고 또 그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여러 여건상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은 우리 약학대학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고도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약학대학 50년사 편찬 및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학의 구조 개편 및 대폭적인 우수 교원 초빙, 발전기금 조성 사업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 사업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며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총 21억 6천 여 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이 조성된 것은 바로 동문들의 모교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2년 봄 발전기금 조성위원회가 태동되는 시점에서 유영후 당시 동문 회장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몇몇 동문지부들

찾아가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십사 부탁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안산시지부에서는 즉석에서 5천 여 만원을 약정해 주시어 며칠 뒤에 있었던 동문회 정기 총회를 통해 발전기금 조성위원회의 출범이 가시화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이후 광명시지부, 수원시지부, 안양시지부, 성남시지부, 서울강남구지부, 부산시지부 등에서도 그 이상의 거액을 흔쾌히 조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문으로서의 끈끈한 유대감과 모교 사랑의 실천 의지를 보여 준 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면 사정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전국 도처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각 동문 지부들의 뜨거운 성원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각 지부별 모임은 물론 각 기수별 기념 모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가 학교 근황과 함께 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세일즈 학장”이란 애칭(?)을 들어가면서까지 극성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여러 동문이 보여준 포용력과 열성은 제 가슴을 불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장실로 팩스를 보내시면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약정해 주셨던 방순환 동문님을 비롯하여 건일제약 김용옥 회장님,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님 등 자발적으로 고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어 모교사랑에 솔선적 모범을 보여 주신 그 정성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문의 마음속에 오래 오래 간직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까지 보내주셨던 성원, 특히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까지 기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이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은
 구성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그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임 학장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발전기금 조성 역시 더 큰 폭발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중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인 “Dragon 2018”에 따라 우리의 염원인 약학관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충고, 진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금을 전달해 주신 서황석 동문님의 열성, 유명을 달
 리하신 후에도 큰 뜻을 전해주시고 고 이해석 동문님
 과 고 이규식 동문님의 눈물겨운 모교 사랑 등 너무
 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나아가 여러 사정상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동문들마저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저력을 새
 삼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동문으로서의 자
 긍심과 함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던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한편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
 고 약학대학 50년사를 편찬한 일은 너무나도 값진
 순간들이었습니다. 명문사학으로서의 반세기 역사
 를 반추하고 우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록을 남
 긴다는 사명감으로 흠어져 있는 방대한 자료를 모으
 고 공백을 메워 가며 주어진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최
 선을 다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냈을 때의 그 기쁨
 과 안도의 한 숨은 지금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가
 슴 설레임 입니다. 재직교수는 물론 퇴임하신 명예
 교수님들까지 참석하여 십여 차례의 편집회의를 거
 쳤고, 동문회에서는 박실장이 동분서주하면서 각 지
 부와 기별 대표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원로 동문님
 들의 자문을 덧붙여가며 동문 모두의 혼과 의지를
 담아 우리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50
 여 성상을 지내오며 자료가 일부 유실되기도 하고
 뒤늦게 자료를 추적하여 기록하기에는 역부족이었
 던 점이 있었고, 발간 일정에 쫓겨 완벽을 기하지 못
 하고 일부 오류나 미비한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감수
 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은 지금도 못내 아쉽기만 합

니다. 한편 이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미약
 품, 삼진제약, 건일제약, 일동제약, 삼일제약, 온누
 리약국체인을 비롯한 많은 유관업체 여러분께 이 지
 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학교 발전도 탄력
 을 얻어 구조를 개편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약학관 신축에 대한 청사진을 펼칠 수 있
 었습니다. 연구의 활성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
 기 위해 12개 전공교실제를 5개 디비전 제도로 개편
 하면서 변화하는 학문 분야도 수용하여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새로운 전공 분야에 신임
 교원 5분을 초빙하였고 겸임교수 4분과 객원교수 4
 분을 추가로 위촉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
 였습니다.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이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은 구성원 모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그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임 학장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발전기
 금 조성 역시 더 큰 폭발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
 다. 나아가 중앙대학교 장단기 발전계획인 “Dragon
 2018”에 따라 우리의 염원인 약학관 신축이 차질 없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충
 고, 진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모
 교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
 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73학번 동기들...

나이 50을 넘은 지금, 옛날 생각을 해 보니 1973년 3월에 입학하여 어색하게 만났던 우리들.

그러면서도 같은 동기라는 의식으로 바로 친해질 수 있었고 젊음을 이야기하며 실험실에서 교실에서 반갑게 만났고 즐겁게 지냈던 것 같은 그 시절...

거듭되는 데모에도 수업은 계속되고 최루탄 냄새에도 실험을 했던 시절.

다른과 친구들에게 데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도 받던 그때...

그때는 왜 그리 힘들었는지. 약용식물의 색선, 정량분석 실험 등 실험이 어렵고 싫어서 힘들었나 봅니다. 재시험에, 재재시험에 방학도 없이 고생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교수님께 맞기도 하며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이었지요.

그러면서도 휴강때나 8교시 수업후에 학교앞 다방이나 빈대떡집에서, 경기가 좋으면 연못시장에서 약대 주제가를 부르며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논하며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가졌던 우리들...

지금와 생각하니 너무 좋았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동기별소식/21회



김 두 수
(21회, 동기회장)

1학년때 전국 약대 문학의 밤을 우리 동기들이 준비했었고 약창, 약수, 약연, 칼럼부스, 각 실험반등 써클활동도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고, 3학년 졸업여행때 무주 구천동에서 교수님과 재미있게 등산하며 놀았던 기억, 각 학년 봄, 가을 야유회 기억, 교수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약학도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듣던 일...

지금 생각하니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기들 근황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수라는 써클을 통해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팔불출회라 하여 졸업후에 자주 만났으나 지금은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세월이 워낙 빨라 돌이켜 볼 시간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



대구 백기홍군, 홍천 김동학군, 마산 박창식군, 서울 백운경군, 인천 박권이군, 하늘나라에 먼저 간 곽재신군 등이 있습니다.

우선 동기부부인 대전에서 약국하는 이규섭, 이효경, 인천에서 약국하는 전명선·김민숙, 김중효·강혜정씨가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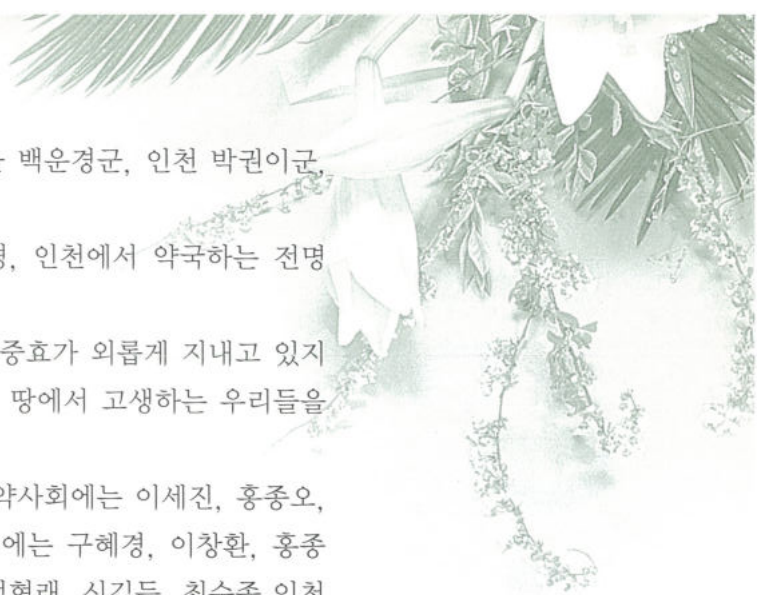
강혜정씨가 뭐가 그리 급한지 하늘나라에 먼저가 김중효가 외롭게 지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재신이와 만나 대학시절 이야기하며 땅에서 고생하는 우리들을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는 박전희, 제약회사에는 이상준, 송진영, 약사회에는 이세진, 홍종오, 김상만, 김용주 등 의약품 수출입업하는 김수배, 대전에는 구혜경, 이창환, 홍종림, 김홍주, 박후신, 장순필, 강원도 이승호, 정재선, 정형래, 신길득, 최순중 인천에는 아직도 많은 동기들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77년 졸업후에 졸업 10주년, 20주년 행사도 하였고, 제1대 유승률군, 제2대 김수배군, 제3대 전명선군, 제4대는 제가 맡고 있으며 더욱더 모임에 열심히 하여야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아닌일이라 어렵습니다.

자주 만나고 벌써 자녀결혼식을 보고 손자를 본 친구도 있는데 가끔 만나 얼굴보고 옛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입학 30주년 홈컴잉데이에 우리가 제일 참석이 저조하여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졸업한지도 30년이 가까워지니 우리 중앙대도 생각하고 동기들도 생각하여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우리 학교가 발전하고 있고 세계로 도약하는 중앙대 그 중에도 약대,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학교를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고 기쁨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는 친구들은 연락 좀 주시고 교수님들에게도 문안 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 21회가 중앙대 약대 동창회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약국일 보고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별난동문이야기



김 동 석 (36회) 동문
서울대 인간생명과학
연구단 조교수

먼저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상목 전회장님과 황공용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면 작년 12월에 피부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국 및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많은 선후배 동문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많은 훌륭한 선후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지면에 나서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약사로서 특이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별난 동문이야기라는 면에 소개되면 좋겠다는 취지에 이렇게 줄필을 들게 되었습니다.

피부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독일에서 유학하던 당시의 지도교수님은 베를린 자유대학 약학대학의 쉐퍼-코팅이라는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부군되시는 분이 뮌헨 의과대학의 피부과 교수님 이시라 자연스럽게 연구테마가 피부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로 정해졌습니다. 쉐퍼-코팅 교수님은 독일에서 약물학의 황제로 불리는 무츨러 교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하신 것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

피부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의 길

나신 분으로 쉐퍼-코팅 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당시에 독일 북부의 킬(Kiel) 대학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독일 약물학 교과서에서 교수님의 이름을 처음 접하고 무작정 베를린으로 상경하여 (킬에서 베를린까지는 기차로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전화약속도 없이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학교실에서 허인회 교수님과 훌륭한 선배님들 밑에서 많은 동물실험 기법을 배웠는지라 동물실험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쉐퍼-코팅 교수님께서서는 동물실험이 아니라 세포 그것도 피부세포를 배양하여 실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에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고, 피부병에 연고만 잘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지라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하지만 약사로서 피부세포를 연구한다는 소리를 들은 일도 없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부과학 교과서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피부가 인간의 기관 중 표면적과 중량면에서 가장 커다란 기관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실험을 해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생명과학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불멸화된 세포주나 암세포주 또는 동물세포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세포를 얻기가 힘들고 배양하

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피부는 손쉽게 사람의 세포를 얻어 실험에 사용하기 때문에 배양하는 기술만 보유한다면 세포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를 사람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연구하는 피부성체줄기세포분야만 할지라도 배아줄기세포와는 다르게 윤리적인 문제가 거의 없고, 분리된 줄기세포를 각종 난치병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고생 안 한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맨 몸으로 독일로 건너가서 한달 30만원정도의 생활비로 버티면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길에서 접시를 닦으며 학비를 벌었던 이야기, 길에서 베를린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민가방 두개를 양손에 들고 어깨에는 등산용 가방을 매고 한달 동안 열번을 넘게 기차와 버스로 이사하던 중 (독일은 보통 철도 요금이 굉장히 비싸지만 당시에 많이 할인된 정기 완행권을 끊으면 완행열차로 한달 동안 독일 어디에나 갈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 버스 운전사가 큰 가방들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자 이게 뭐냐는 질문에 이사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이야기, 몇 끼를 굶어서 원하던 책을 손에 넣고 가슴 뿌듯 해 하



언제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고, 중앙 약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가르침을 주신 모교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한다면 언젠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동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던 이야기 등은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피부세포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욕심에 서울의대 피부과와 인연이 닿아 서울대병원 임상약학연구소를 거쳐 지금은 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있으면서 약대에서 세포실험만 할 때와는 틀리게 피부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접목시켜 흥미있는 연구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처가 38회 동문으로 2년 후배이며 현재 미국의 University of The Pacific에서 조교수로서 임상약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장모님이신 신정숙 약사님 또한 6회로서 모교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언제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고, 중앙 약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가르침을 주신 모교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한다면 언젠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동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화량 때문에 한번쯤 소화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소화불량처럼 애매 모호한 증상도 없다. 소화불량이란 음식섭취 후 단순히 소화가 안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후 포만감, 식욕부진, 복부 팽만감, 조기 포만감, 트림, 상복 부 불편감 또는 통증, 속쓰림, 오심, 구토, 위산 역류, 가슴앓이 등의 소화기계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후 또는 과식을 했을 때에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정한 원인이 없이 매일 그러한 증상을 겪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가 가장 흔한 형태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하며 식후 불편감과 포만감을 주로 호

픈 궤양형은 주로 야간에 심한 심와부 동통을 호소하며 음식이나 제산제에 의해서 증상이 호전된다. 역류형은 위식도 역류 질환처럼 신물이 넘어오거나 가슴 중앙이 쓰리고 아픈 증상을 보인다. 운동장애형은 상복부 팽만감과 구역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위배출능이 감소되었거나 위가 음식물로 인해 팽만될 때 또는 내장 감각신경이 과민 반응을 보일 때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흔하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거의 대부분의 소화기질환과 기타 심장질환, 전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환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매우 광범위하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위투시, 위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기질적인 원인인가 기능적인 원인인가를 추적관찰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 체중감소, 구토 등의 증세가 심하면 기질적인 병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약국도움이야기

소 · 화 · 불 · 량

최 병 철 (21회) 동문
 약학박사,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약사교육연구소 소장

소한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환자들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궤양, 위염 또는 담낭질환과 같은 심각한 위장관 질환이 소화불량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대개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 수주간 증상이 없다가 수주 내지는 수개월동안 증상이 다시 지속되기도 한다. 병태생리학적 분류상 전체 환자의 10-20%는 비전형적인 위·식도역류질환, 약 35%는 위의 운동이상, 30-60%는 H. pylori 감염, 나머지는 위 운동의 부조화 내지는 장의 감각능 이상 등으로 나타난다. 다시 기능성 소화 불량은 궤양형, 역류형, 운동장애형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이러한 형태들은 증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서로 확실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여러 형태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 궤양이 없는데도 궤양 환자처럼 속이 쓰리고 아

1. 종류

1) 기능성 소화불량

명치밑을 중심으로 복부의 윗쪽에서 주로 느껴지는 복부 불편감, 음식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 등이 특징적이며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처럼 속이 쓰리고 아픈 경우도 있다. 주로 상부위장관인 식도, 위, 십이지장의 기능이 약해서 생긴다. 기능성이란 말은 내시경과 같은 검사결과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된다. 내시경이나 위투시 같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위가 실제로 헐거나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쉽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2) 과민성 장증후군

배꼽주위 혹은 아랫배쪽이 주로 불편한 것이 특징이다. 가스가 차고 식후에 살살

아랫배가 아프며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지만 괘변을 보지 못한다. 이 경우도 장내시경이나 대장조영술로 대장에 눈에 보이는 병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능성 질환이다.

- 3) 기질적인 원인들 : 소화성궤양, 역류성 식도염, 악성종양, 담도 및 췌장의 질환(결석, 염증 등)과 같이 실제적인 병변이 있는 질환들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
- 4) 소화기질환 이외의 원인들 : 심부전증, 폐결핵, 요독증, 당뇨병, 요로 결석 등
- 5) 약물에 의한 경우 :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들이 소화불량 증상을 일으키므로 현재 복용중인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먼저 의심해보아야 한다.

2. 증상

뚜렷하게 국한되지 않는 상복부 불편감, 음식 섭취 후 악화되는 불편감, 구역, 구토, 조기 포만감, 상복부 팽만감, 트림 등은 상부 위장관 기능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다. 아랫배 쪽을 중심으로 팽만감, 불편한 통증, 방귀, 시원치 못한 배변 등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주 증상이다. 기타 원인에 의한 증상들은 원인질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소염진통 등 약물에 의한 경우는 속쓰림과 위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위궤양 등 기질적 질환이 발생한다. 담낭이나 요로계의 결석과 연관된 소화불량은 간헐적으로 몹시 아프다가 살지는 통증과 동반된다. 심부전은 호흡곤란과 부종이 동반되며 폐결핵은 기침, 각혈, 체중감소, 미열 등이 동반된다

〈치료제의 선택〉

소화제는 증상에 따라 소화효소제, 제산제, 위장운동촉진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중 소화효소제는 대개 복합제제이므로 증상에 맞는 성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판크레아틴은 돼지의 췌장에서 얻은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등이 함유된 종합 소화효소제이며 위산에 의해 불활성화되므로 장용정제제를 선택한다. 판크레아틴에 리파제의 용량이 많이 함유한 판크레아리파제는 지방변을 감소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디하이드로콜린산은 비포합, 산화된 담즙으로 주로 우담즙액기스, 콜린산의 주된 구성분이고 자극성 완하제 작용을 나타내어 변비의 일시적 조절에 사용될 수 있다. 디메치론 또는 시메치론은 가스 방울의 계면 장력을 감소시켜 위장관에 가스가 차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

과적이다. 브로멜라인은 위장관 단백분해효소와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므로 단백질 소화에 효과적이다. 진경제는 담관 및 위장관 경련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위산 분비 억제제, 제산제 등은 위산 분비에 의한 속쓰림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제산제중 마그네슘 함유제제가 효과적이고 알루미늄 환제제는 도리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장관 운동 저하에 의해 나타난 소화불량, 변비, 포만감에 효과적이다. 처방 약물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돛페리돈 등이 있고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중추성 항도파민제로서 소화관운동촉진 작용, 항구토 작용이 있다. 부작용으로 고프로락틴혈증이나 추체외로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돛페리돈은 말초성 항도파민제로서 위배출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나타낸다. 트리메부틴도 위장관 촉진제에 포함될 수 있는데, 아편 효능제이고 양면적으로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로서 운동지연에 대해서는 운동항진을, 운동항진에 대해서는 억제적으로 작용한다. 상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과 함께 복통과 설사가 동반된 경우 트리메부틴이 효과적이다.

복 약 지 도

1.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등을 피하도록 한다.
2.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한다.
3. 자극성 음식과 지방식을 피하도록 한다.
4. 과식 및 폭식을 피하고 음식을 천천히 섭취하여 위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5. 가급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도록 한다.
6. 증상이 2주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7. 다음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 1) 평소에 소화기능이 좋던 사람에게 갑자기 발생한 소화불량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 2) 복부에 종기가 만져지거나 혈변이 있을 때
 - 3) 기질적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지방변, 변실금, 체중 감소, 발열이 있을 때
 - 4) 잠을 깨우는 통증이나 설사가 있을 때
 - 5) 심한 피로감이나 미열이 동반된 소화불량일 때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서 황 석
(9회, 미주동문)

약사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면 오늘은 브루클린, 내일은 퀸즈, 그리고 주말은 스탠포드 아일랜드에서 일할 때가 많다.

반 은퇴는 하였지만 동부전선, 서부전선으로 전선을 따라 사방으로 뛰어 다니는 병사처럼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전쟁과 시장'이란 소설의 주인공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전쟁터처럼 피곤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러다 쉬는 시간이 생기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다. 혹시 재미있는 토픽이라도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3월 16일자) 한국일보에서 '자 노래합시다. 희망을... 인생을...'이란 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지는 기분이었다. 그 글은 그리운 멜로디처럼 친구들이 부르는 합창처럼 강렬하게 내 영혼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도 봄이 오는 것을 느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신앙으로 노래하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신선함을 느꼈다.

지난 1월 30일 LA에서 94세를 일기로 이유선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 선생님은 나의 은사로, 또 나의 모교 배재학당의 대선배로서 한국음악계의 산증인이었다. 한국음악가협회 초대 회장, 초대 교회음악협회 회장도 지내셨다. 100만 명이 모인 한국 최초의 여의도 빌리 그래함 전도 대형 집회에서는 1만명이 넘는 연합성가대를 지휘하셨던 그 어른이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의 자작곡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가와 당신의 모교 교가를 부르시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편안히 하늘 나라로 가셨다는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설립자 아펜젤러 목사님의 작사로 작곡한 나의 배재학당의 교가 "우리 배재학당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영원무궁하도록..."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아마 몇

만번은 불렀을성 싶다.

나의 18번이라고 해도 좋은 그 교가, 우리의 결혼식날 내가 신랑으로 입장할 때 브라스 밴드로 울려 퍼졌던 그 교가는 개선행진곡 보다도 웅장한 팡파르였다.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노래를 나는 과연 돌아가신 선생님 같은 마음을 갖고 불렀을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진실되게 기쁘게 살아 왔었던가? 스스로 자문하니 부끄럽다.

50년 전 휴전협정 후 가난한 시절 입학식날 불렀던 "노래하고 노래하자"는 가사와 멜로디가 나에게서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회에서 어린애들이 부르는 주일학교 노래같기도 하고 대포집에서 부르는 권주가(?)같기도 하였던 그 가사와 멜로디의 깊은 뜻을 이제 제법 나이를 먹다보니 알 것 같다.

얼마나 간단한 가사인가. 함축성 있는 긍정적인 내용인가?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노래할 수 있을까?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절기에 봄의 향기가 막 진동하는 이 계절에 돌아가신 이유선 선생님의 그 미소를 생각하면서 교포 한 분 한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우리 함께 기쁘게 노래 부르자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안절부절하며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싶어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 사업의 실패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병마에 시달리며 정신이 약해진 사람 등등 고통과 어둠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찬란한 햇빛의 양지로 함께 걸어와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자, 고난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봄의 노래, 희망의 노래, 다시 거듭나는 기쁜 부활의 노래를 우리 다 함께 손을 붙잡고 불려보자.

보·물·찾·기



숨어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손의동 교수 '후스후' 2005판 등재

식도·위염 세포내 신호전달 연구 등 공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손의동 교수가 미국 마르퀴스사가 발행하는 인명사전 후스후(Who's Who in the World) 2005년 판에 등재됐다.

손의동 교수는 지난 15년간 식도염과 위염의 여러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세포 내 신호전달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신의약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활동과 업적을 인정받아 후스후에 등재됐다.

손 교수는 美 브라운 의대 소화기질병연구소 소속으로 3년 간 연구원, 2년간 연구교수로 연구를 실시했고 영남의대를 거쳐 중앙대 약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분자조절신약개발연구소장직과 임상약학주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또한 Autonomic & Autacoid Pharmacology 지의 편집위원장인 Broadley교수의 초청으로 2003년부터 국제편집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 동안 소화기질병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브라운 대학의 소장인 비안카니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하여 두 차례 (1992년 과 1993년) 국제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2001년에는 중앙대학교 학술상을 2002년에는 대한 약리학회에서 학술상을, 2004년에는 대한약학회로부터 녹암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승재(24회) 의학식품 대학원 객원교수



【 현근무지 】

- 그린팜약국

【 위촉기간 】

- 2005.3.1~2006.2.28

행사

▶ 1월 10일 신년교례회(동문회관)

- 참석자 : 임상목 회장, 박찬희 여동문회장, 김기홍(1회), 오세형(3회), 최종목(3회), 윤주섭(8회), 조의환(8회), 허근희(8회), 권혁구(9회), 황공용(11회), 조찬휘(15회), 신상직(17회), 조중형(18회), 김경오(19회), 김미담(19회), 김현태(20회), 김형근(22회)



▶ 2월 25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 대한약사금장 : 한석원(8회)
- 약연상 : 최옥출(11회), 이일형(13회), 선우영환(17회)



▶ 3월 18일 병원약사위원회(삼진제약 회의실)

- 참석자 : 김승업회장, 이민원학장, 최귀령(8회), 이대운(10회), 조정자(10회), 박찬희(11회), 염윤기(12회), 이성우(12회), 강혜옥(20회), 류화송(20회), 이광섭(24회), 윤희정(31회)



- ▶ 3월 23일 중앙대학교약학대학장학금 수여식(교수세미나실)
- 참석자 : 임상묵 회장, 박범훈 총장, 박찬희 회장, 권혁구, 김경오 사무총장의 재임교수



- ▶ 5월 12일 송파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진희억(26회) 회장
- ▶ 5월 14일 부산지부 정기총회 (크라운호텔)
- 참석자 : 임상묵 회장, 박찬희 여동문회장, 이민원 학장, 황광우 학부장



- ▶ 5월 17일 성북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조찬회(15회) 회장
- ▶ 5월 23일 사무총장단회의 (동문회관)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 내 용 :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및 약사공론, 약업신문 취임인사 방문
- ▶ 5월 25일 인수인계 (동문회관)
- 참석자 : 전임 - 임상묵 회장, 김경오 사무총장
신임 - 권혁구 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기 증



지난 2월에 안희규 (28회) 부회장이 동문회 사무실에 현판을 기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정찬헌 (20회) 부회장이 동문회 사무실에 복사기를 기증했습니다.

- 내 용 : 회무·회계 전반 및 기금 현황 인수인계
- ▶ 5월 25일 서초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이규삼(24회) 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 ▶ 5월 25일 강남구약사회 자선다과회 유대식(22회) 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 ▶ 5월 26일 김수배(21회) 이사 모친상
- ▶ 5월 28일 성동구약사회 자선다과회 김영식(23회) 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종열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인 사

- 11회 신임동기회장 황공용
- 18회 신임동기회장 강응모
- 20회 신임동기회장 이신규

결 혼

- 1월 16일 김구(12회) 이사 자녀결혼

부 음

- 1월 20일 김용옥(3회) 동문 빙모상
- 1월 21일 정도연(14회) 동문 빙모상
- 1월 28일 이경옥(19회) 이사 시부상
- 1월 29일 김영일(7회) 감사 부친상
- 2월 1일 허청옥(8회) 동문 부친상
- 2월 18일 소순웅(26회) 동문 부친상
- 4월 14일 이길만(20회) 동문 모친상
- 4월 18일 이현수(25회) 동문 부친상
- 5월 6일 정영수(20회) 동문 모친상
- 5월 11일 김연희(8회) 이사 형제상
- 5월 26일 김수배(21회) 이사 모친상
- 6월 12일 권태섭(9회) 감사 모친상

부임시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근조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삼진제약

미래도약의 산실 인텔리전트 신사옥 준공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다짐
초일류 선도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원년의 해 선포



조 의 환 (8회) 회장

삼진제약(대표 이성우)은 2월 24일 신사옥 준공과 함께 입주를 완료하고 신사옥에서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되어 1년 8개월에 걸쳐 이번에 완공된 신사옥은 지상 10층, 지하 3층(연면적 8,897.76㎡)규모로 모든 시설이 자동제어로 통제되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인프라구축이 돋보인다. 이번 신사옥의 준공으로 사세 확장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의 질을 높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진제약은 고객 지향적인 현장 밀착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에게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 개발과 더불어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 성 우 (12회) 대표이사

아울러 삼진제약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명 존중의 기업”의 기업이념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2005년을 “변화의 물결 속에 초일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총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한 삼진제약은 공장 증축 완료에 이어 첨단 신사옥의 준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지식경영 및 인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구조개편 겸임·객원교수 위촉

2005년 5월 현재

- 전임교원 : 20명
- 명예교수 : 7명
- 겸임교수 : 4명
- 객원교수 : 4명

2005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 위촉



최 보 경

【 학 력 】

- 1983 :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2002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주요경력 】

- 국립보건원 약품부
- (현)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 위촉기간 】

- 2005. 3. 1 ~ 2007. 2. 28

2005학년도 1학기 객원교수 위촉



양 덕 숙

【 학 력 】

- 1984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1994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현근무지 】

- 서광타워약국장

【 위촉기간 】

- 2005. 3. 1 ~ 2006. 2. 28



이 종 민

【 학 력 】

- 1985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1998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현근무지 】

- 용한약국장

【 위촉기간 】

- 2005. 3. 1 ~ 2006. 2. 28



최 광 훈

【 학 력 】

- 1981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 2001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현근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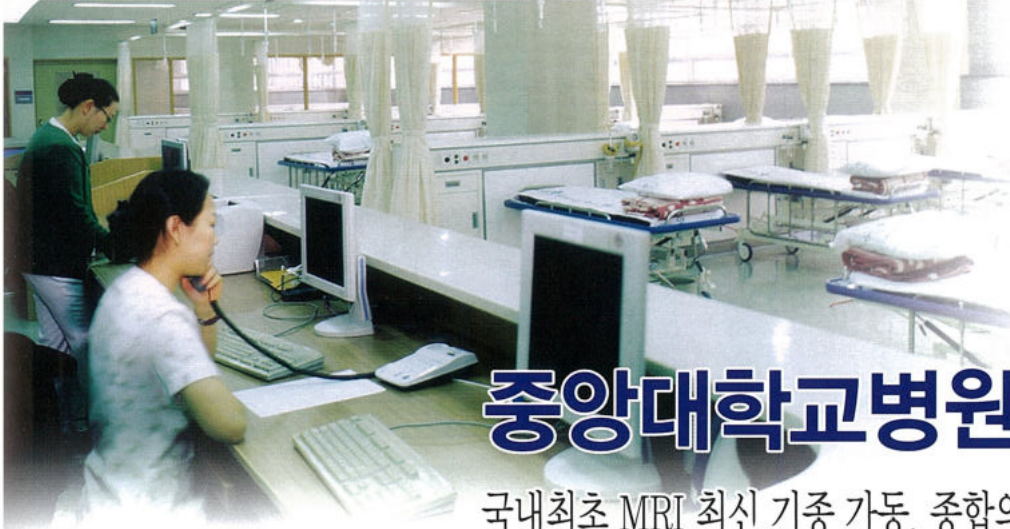
- 유명약국장

【 위촉기간 】

- 2005. 3. 1 ~ 2006. 2. 28



신뢰받는 병원, 내집 같은 병원, 연구하는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개원

국내최초 MRI 최신 기종 가동,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561병상, 지상 15층 지하3층, 흑석동 중앙대학교 캠퍼스 앞에 위치

중앙대학교동문 외래, 입원 진료시 진료비 할인혜택

- 선택 진료료 : 본인(50만원까지 50%할인, 50만원 초과분부터 30% 할인)
직계가족(100만원까지 30%할인, 100만원 초과분부터 20%할인)
 - 신설 - 비급여 : MRI, 초음파- 본인 20%할인, 직계가족 10%할인
 - 종합건강진단비 : 본인(20%할인), 직계가족(10%할인 신설)
 - 라식, 엑시머 : 15% 할인(본인)
- ※ 자세한 문의는 Tel : 02-6299-1114



중앙대학교 의료원이 흑석동에 새로 건립한 "중앙대학교병원"은 2004년 1월 18일부터 개원식을 거행하여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흑석동(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4-1번지) 중앙대학교 캠퍼스 앞에 세워진 "중앙대학교병원"은 561병상으로 20개의 진료과가 개설되며 73명의 교수진을 포함한 613명 직원들이 진료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지상 15층, 지하3층으로 대지 면적 6,948.425평, 연면적 18,197.60평으로 주차 489대 수용을 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의료원은 현재 충무로에 위치한 부속필동병원을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이전하게 되며 "중앙대학교병원"은 첨단장비와 시스템으로 진료영역에 특화 및 전문병원으로 연구와 치료를 위한 대학병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차별화 된 선진의료서비스(신뢰받는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국내 뿐 아니라 의료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 된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병원입니다. 동일시간에 16단면을 촬영하여 뛰어난 3차원 영상을 구현하는 LightSpeed PRO 16 Slice MD CT는 기존 CT보다 빠르고 정확한 영상표현과 다양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도입한 MRI Archeva3.0T는 고속촬영이 가능하여 환자의 장시간 촬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인체의 모든 부위검사, 빠른 검사시간, 고해상력 화질로 환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 치료 분야에 있어 국내 최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압전식 쇄석기에 비해 시술횟수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신형 쇄석기인 소노리스(SONOLITH)를 도입하여 쇄석기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차별화 된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될 것이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환자중심의 사고전환과 첨단 연구를 통해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21억 8천 1백 1십만원 (2005년 6월 14일 현재)

교 수 총 16,800 만원

- <교내> 이민원(1,000),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종(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7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 <타교> 오유진(300), 한성순(100), 주왕기(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임세진(30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30,500 만원

- 권혁구(1,000), 임상목(1,000), 유영후(1,000), 조의환(1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 기부 총 5,95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7회 동기회(5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약대기금(3,200)
- 7회 약우회(박숙자외 11명)(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기업체후원(700)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원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개인·부부동문 총 159,410 만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헌(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흥만(300)
 <2회> 고두훈(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3회> 김석자(300), 김용옥(50,0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허인회(500)
 <5회> 박명자(고두훈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자(300), 이기환(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준중(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정재일(500), 차승현(3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미(5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500) 이조열(300), 임상목(1,000), 장영자
 (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 부부(300) 조의환
 (11,000) 최병준(200), 한석원(500) 허근희(300)
 <9회> 권혁구(1,000), 김영부(500), 상병준(300), 서황석
 (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
 (300), 유정사(5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장영조
 (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
 (300)
 <11회> 김승업(300), 김정길(100), 김창종(5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홍금재(남기탁
 부부, 500)

-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 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민명임(1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조찬휘(300)
-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우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종형(3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400), 김경오(500), 김동희(300), 박호식(300), 옥태석(300), 이경욱(300), 이창욱(300)
- (20회) 강해욱(300),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열호(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 5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강성무(300),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백운경(5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 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강희윤(300), 김철수(300), 김홍진(500), 박동우(300), 손의동(700), 오홍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장용운(300), 전일오(300), 최광훈(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정원국(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종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손현우(3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소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곽순자(15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 (28회)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곤(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박용석(100), 박우종(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효금(3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재(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재(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변동성(30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3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이재휘(5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광정근(300), 권준한(300), 황광우(500)
- (36회) 방극상(50),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박종호(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 (41회) 구영준(300)
- (43회) 강규태(100), 김종호(100), 신병숙(3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2005년 1월 1일 ~ 2005년 6월 15일)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 8회 : 임상목, 조의환, 김돈기, 허근희
- ▷ 9회 : 권혁구
- ▷ 10회 : 박호일, 유정사
- ▷ 11회 : 정덕호, 황공용, 박찬희
- ▷ 12회 : 노덕재, 이호섭
- ▷ 13회 : 서국진, 안병식
- ▷ 14회 : 김종렬
- ▷ 16회 : 최광식
- ▷ 17회 : 양희익
- ▷ 19회 : 김경오, 김미담
- ▷ 20회 : 김현태, 정찬헌
- ▷ 21회 : 김두수
- ▷ 22회 : 최광훈
- ▷ 23회 : 박종화
- ▷ 24회 : 김승재, 안희규
- ▷ 30회 : 김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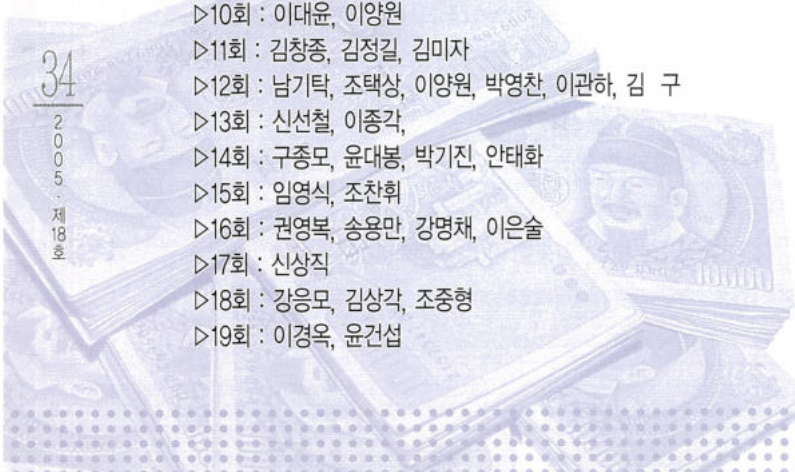
이사회비(연12만원)

- ▷1회 : 김기홍, 홍홍만, 김옥동, 손동헌
- ▷2회 : 고두흔, 정덕화, 지선훈
- ▷3회 : 최종목,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오세형, 노인배
- ▷4회 : 이창우, 박노일
- ▷5회 : 김명섭, 김영배, 김중무
- ▷6회 : 박정배, 임성기, 안병한, 임완호, 김명기, 유상열, 김동열
- ▷7회 : 이기안, 박명신, 유영후, 서명규, 유윤자, 김정부, 한철희, 전승규, 김영일, 정재일, 이양원
- ▷8회 : 한석원, 박번일, 김홍자, 윤주섭, 이백천, 김연희, 김형이, 김신자, 최영자, 문옥자
- ▷ 9회 : 이근배, 김의섭, 황태선
- ▷10회 : 이대운, 이양원
- ▷11회 : 김창중, 김정길, 김미자
- ▷12회 : 남기탁, 조택상, 이양원, 박영찬, 이관하, 김 구
- ▷13회 : 신선철, 이종각,
- ▷14회 : 구종모, 윤대봉, 박기진, 안태화
- ▷15회 : 임영식, 조찬휘
- ▷16회 : 권영복, 송용만, 강명채, 이은솔
- ▷17회 : 신상직
- ▷18회 : 강응모, 김상각, 조중형
- ▷19회 : 이경옥, 윤건섭

- ▷20회 : 박기배
- ▷21회 : 전명선, 김수배
- ▷22회 : 강희윤, 손의동
- ▷23회 : 제갈희, 정세희
- ▷24회 : 심영철, 황규진, 함삼균, 윤규형, 정종근, 최명배
- ▷25회 : 김희섭, 고성권, 이민원, 최두주
- ▷26회 : 최민규, 진희역, 김정수B
- ▷28회 : 김영희, 양덕숙
- ▷30회 : 고석일, 최병원
- ▷무명 : 16명

일반회비(연2만원)

- 1회 : 이한두, 안연희
- 2회 : 정인장, 한성순, 김양원, 김길수, 홍순각, 황인규, 황재수, 선관수, 박병한, 박필일, 김홍식
- 3회 : 김기동, 현영철, 한만우, 손석우, 심한섭, 임종환, 이기옥, 이병균, 선병진, 이요식
- 4회 : 오제호, 홍범표, 최중화, 김희관, 정복영, 서동수, 나수연, 정달수, 이영일, 김태영
- 5회 : 손규산, 임맹순, 임갑환, 강용구, 임형철, 조주행, 선중훈, 김원전
- 6회 : 이풍기, 신현곤, 신의명, 김태춘, 정진석, 이원걸, 황선창, 이종호, 유승균, 김태형, 박희숙, 박배원, 이성호, 신현수, 박승희, 김중구, 임철부, 유복상, 김연빈
- 7회 : 안기현, 윤태정, 강승안, 조경신, 민병창, 조근행, 한경석, 손종화, 김경동, 권오성, 유효희, 최성림, 조익중, 이태운, 박용준, 성 용, 박래식, 김정웅, 인고길, 권기동, 이윤재
- 8회 : 정현숙, 문홍수, 서동섭, 장승자, 홍봉표, 박수일, 박영우, 안덕기, 엄규중, 정재영, 이영복, 김일래, 이숙자, 강경식, 허정자, 손현우, 이태하, 김진우, 박희철, 김창수, 권태수, 엄순자, 이조열, 임진택, 장동진, 서진일, 유제우, 김복근, 김동호, 문제영, 이성규, 김종인, 김성숙, 임천석, 김기중, 정수광, 최승치, 김은제, 이정복, 박재웅, 유병호
- 9회 : 박장규, 박준호, 이경주, 조경자, 윤광로, 박성학, 임승진, 손승언, 김 철, 한정희, 신우식
- 10회 : 김삼균, 이성규, 박광일, 오창학, 방순환, 변도문, 홍성민, 박상길, 이원일, 이장열, 김광일
- 11회 : 이교문, 신명승, 김철홍, 양계창, 유병태, 서세양, 강일성, 윤대장, 이범진, 안홍신, 구자역, 이기호
- 12회 : 이성순, 우경숙, 이기현, 홍정덕, 송두금, 김광혁, 이재원, 이만우, 이광호, 박명규, 장석훈, 원은한, 김두학, 이병재, 김동욱, 이종욱, 이원주
- 13회 : 왕문화, 임동욱, 김창식, 김신미, 권일순, 유용상, 손찬규, 김성갑, 유희동, 윤해선, 김태중
- 14회 : 현혜경, 최중택, 유관희, 안해봉, 안희영, 김갑동, 박찬임,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 이병조, 김동원, 전봉선, 홍성철, 이희영, 조양연
- 15회 : 정옥주, 오세일, 조성래, 박원봉, 조경래, 박태호, 고동석, 이양섭, 박인호, 유태형, 박명배, 이덕로, 우순연, 최재길
- 16회 : 강경식, 권희문, 박창호, 박주영, 김용우, 한인희, 김제성, 신규언
- 17회 : 김재천, 유종관, 최해광, 박재식
- 18회 : 조춘우, 이영우, 김청길, 이복숙, 박인환, 여운숙, 최정순
- 19회 : 고재무, 유제영, 김기성, 김동희, 송택용, 유창희, 권영훈
- 20회 : 방재환, 이종훈, 박문수, 윤춘수, 배성진, 안연준, 지태현, 조진환, 김영남, 정금순, 권오규, 최용철, 최옥숙, 정동천, 임경원, 우영각
- 21회 : 여경남, 신길덕, 이두순, 이상준, 김성만
- 22회 : 한만영, 이순명, 심재호, 한상훈, 김태일, 유대식, 이명수
- 23회 : 박희용, 한용문, 안봉국, 조병학, 정원국, 은성기, 이근주, 이영림, 이원길, 오신환
- 24회 : 강창주, 임철빈, 김정일, 한성연, 김기준, 임무호, 김봉문
- 25회 : 권세형, 송태수, 전경숙, 이동규, 김창현, 김춘규, 김선열, 조대현, 위성건, 이수근
- 26회 : 정기춘, 조용백, 이순아, 박주돈, 김안식, 윤광중, 손영상, 박정래, 하재일, 이종양, 조병호, 한갑현, 김형남, 이근주, 김광욱
- 27회 : 유재수, 한규정, 최총식, 김덕진, 안희영, 오영돈, 이병일, 박만성, 박수길, 이정아, 장영희, 오홍설
- 28회 : 조승찬, 권창호, 김형남, 오용식, 임춘식, 조상오, 박우중, 유희동, 양창국
- 29회 : 이종민, 정극성, 김광석, 이경근, 박춘화, 이경우, 김은진, 백승권, 김정훈, 강선영
- 30회 : 김연하, 이진우, 손은실, 김광식, 윤희숙, 강성철, 고은숙, 이경숙, 어은주, 조순열, 강현주, 김용규, 홍염미, 전두환, 김선경, 최현희
- 31회 : 최윤실, 구상미, 서경찬, 이문섭, 문희석, 이미자, 유문숙
- 32회 : 박래경, 김광복, 이경우, 장인순, 함인혜, 유귀숙,
- 33회 : 소정우, 길봉진, 최현정
- 34회 : 박상권, 이영구, 홍용기, 김종국
- 35회 : 김진, 오창현, 이경석, 서유정
- 36회 : 정현희, 방극상, 유수미, 강정희
- 37회 : 심준오, 박상훈
- 38회 : 이봉상, 이주희, 조인호, 이현숙, 곽분임
- 39회 : 전병선, 신소옥, 임재용
- 40회 : 장정수, 홍기연
- 41회 : 박종일, 이미경, 구영준, 오종헌
- 42회 : 허민찬, 김창경, 편석화, 이윤진, 최장순
- 43회 : 이현선, 신현우
- 44회 : 강미진, 김수길
- 45회 : 신미순
- 46회 : 김윤경
- 47회 : 박주영
- 무명 100명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이진기	3.77
	700,000	약학2	허장현	3.54
	700,000	제약2	박양희	3.86
	700,000	제약2	신은진	3.95
	700,000	약학3	이준희	3.78
	700,000	약학3	임재민	3.90
	700,000	제약3	이상현	3.92
	700,000	약학4	최한이	4.00
	700,000	약학4	이우철	3.92
	700,000	제약4	남주연	3.97
부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제약3	이다영	3.85
안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제약4	이성빈	3.83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2	이효진	3.95
	500,000	제약4	우민나	3.92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3	김인철	3.47
약제반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3	김보견	2.95
약수회동문회 (2,000,000)	1,800,000	약학3	박성현	2.78
한미약품(주) (3,632,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5,932,000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대약대동문회
- 입금후 전화연락바랍니다.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컴퓨터나 휴대용 전화기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生活이 훨씬 편리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생각할 사이도 없이 기계가 처리해주는 결과에 사람이 속박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당연히 思考의 필요 보다는 동작의 민첩성이 증시되고 그 결과도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필요없는
 “빠른 행동”만이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비극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행동이 굼뜰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말했듯이 생각이라는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비록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 생각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명

“공공의 적”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
 생명공학연구원팀은 천연식물에서 얻은
 추출물을 연구한 결과 어성초 등 4종이상
 식물에서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를 증식억제하는 신
 물질을 발견했다한다. 버르고 버르다 드디어
 1961년도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이란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었다.
 44년이란 긴 세월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었지만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 탄탄한 작품구성 적나라한 시대적 감성
 등 그 문학성에 벅찬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천연 신 물질로서도 치료될 수 없는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흘러간 영화는 탁월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한다.
 어디한번 추억에 빠져 보시겠습니까?
 자!! ~

꿈

또 2년의 임기가 끝났다.
 아니 새로운 2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아니면 시작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또 우리는 맨 처음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항상 끝장이 첫장 같으면 좋으련만...
 아
 망각이여!
 우리들의 기를 새로운
 집행부에게 모아주어
 활기찬 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김기명(18회), 김경오(19회), 박희용(23회),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최고의 제품을 위해 삼진은 언제나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정



겔마® 현탁액
Gel type 위장약의
Broad Spectrum 선언



스티몰® 액
임상적으로 입증된 피로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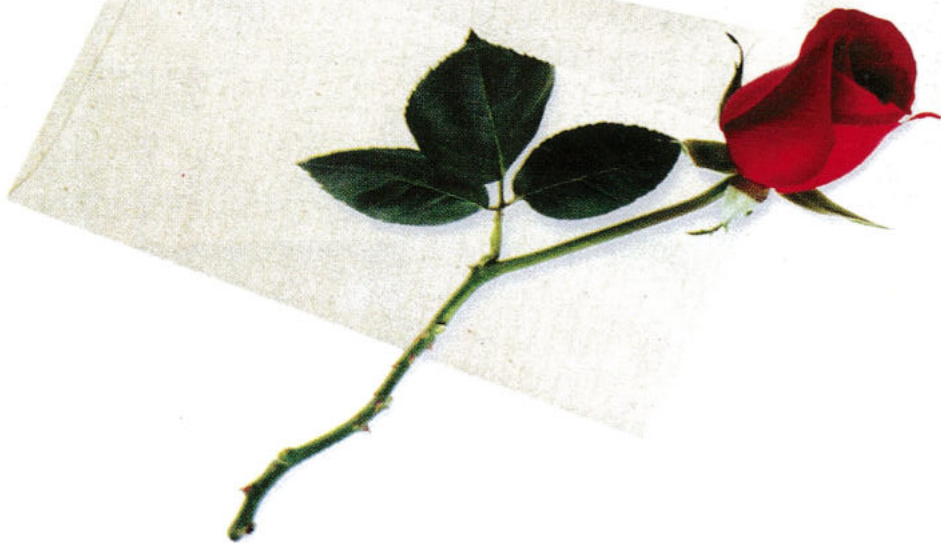


오스테민® 캡슐
관절염의 구조적 개선

고객에게 신뢰받는

온누리 약국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늘 가까이 있는
온누리약국입니다."



전국 1,300여개의 온누리약국체인은
국내 최고의 전문 드럭스토어 체인으로
Health(건강함), Beauty(아름다움), Clean(청결함)을
추구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온누리약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온누리 약국체인
ONNURI Chain Drugstores



창업자 유일한 박사

'좋은 약을 만들어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은
신뢰받는 유한양행을 이룬 밑거름입니다.

유한의 제품은 언제나 믿음을 줍니다.

우수의약품 생산을 위해 오직 한길만 걸어온 유한양행 - 베풀어주신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더욱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유한의 기업정신

유한은 기업 이익의 40%를 사회에 환원하여 각종 장학 사업 및 교육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켜온 유한양행

'좋은 약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 이념은 끊임없는 우수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 버들표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으며 각종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